

지방선거·올림픽·남북관계 ‘화제’ 민주 “인기” 민평 “기대” 바미 “주목”

설 연휴 광주·전남 지역 민심

설 연휴기간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남북관계 개선, 평창 동계올림픽, 일자리 문제 등에 모아졌다. 설 연휴를 맞아 지역구 민심 훑기에 나선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민심을 이같이 전했다.

이 가운데 정치 현안 분야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신3당 체제로 재편된데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여전한 인기 속에 국민의당에서 쪼개진 민평당에 대한 기대감과 향후 바른미래당의 역할에 주목하겠다는 목소리가 대세적이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한 것으로 전했다.

광주·전남의 유일한 민주당 소속 이계호(당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적폐청산을 완수하

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여당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야 한다는 격려와 응원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남북교류 물꼬를 튼 만큼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까지 했으면 하는 기대감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을 탈당해 민주평화당으로 옮긴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당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와 당부를 주로 전달했다.

장병완(광주 동남갑) 민평당 원내대표는 “지역민들 대다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고 있었다”며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제시보다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굵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민주당 일당독주로는 호남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민평당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최정환(광주 북구을) 민평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정치현안보다는 평창 동계를

림픽 성공 개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면서 “민평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안철수와 갈라서길 잘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한다’는 당부가 많았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현 정부 경제현안과 관련해서는 “세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일자리 취업 걱정을 많이 하는 지역민들이 많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통합파로서 바른미래당에 합류한 국회의원들은 합당에 대한 지역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완화돼 격려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철(광주 광산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통합과정에서 보여준 당내 절차 등의 소홀에 대해 많은 실망감이 있었지만,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을 넘어선 이념 통합의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격려와 당부가 많았다”고 전했다.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의원은 “바른미래당이 호남과 향후 정치개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높았고, 격려도 많았다”고 전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16일 평창동계올림픽 메달프라자에서 열린 남자 스킨슬레TON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윤성빈이 금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박승선기자



지난 17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우승한 최민정이 시상식에서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안공항~중·일·필리핀 정기노선 취항

3월부터 4개 노선 9편 ... 올 이용객 50만 돌파 기대

지난해 5월 끊겼던 무안국제공항의 중국 상하이 하얼빈이 다음달 다시 열린다. 또 일본 기타큐슈, 필리핀 보라카이와 세 부 노선도 정기노선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무안공항은 ‘정기선 없는 국제공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전남도는 무안공항의 노선 다변화에 따라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이용객 50만명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다음달 말부터 중국 상하이, 일본 기타큐슈, 필리핀 보라카이와 세부 등 4개 노선, 항공기 9편이 정기 취항한다.

무안공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정기 운항하던 중국 상하이·베이징 2개 노선이 지난해 5월과 10월 각각 중단됐다. 정기노선 2개 모두 중단되면서 무안공항은 ‘정기선 없는 전세기 국제공항’으로 전락했다.

전남도는 사드 여파를 겪으면서 중국 단

편노선의 한계를 경험한 탓에 항공노선 다변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필리핀·베트남·타이완 등 동남아와 일본 국제선 유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아간운항이 가능한 ‘잠자지 않는 공항’이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해 제주~무안~일본, 제주~무안~동남아 세일즈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사드 여파가 해소되면서 중국 동방항공은 다음달 28일부터 무안공항~상하이 노선을 재취항한다. 무안에서는 매주 수·토요일 낮 12시20분에, 상하이에서는 매주 수·토요일 오전 8시45분에 출발한다.

일본 기타큐슈를 운항하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비정기 노선은 화·금·일요일 주 3회 정기 노선으로 전환한다. 무안에서는 오후 6시에, 기타큐슈에서는 오후 7시40분에 출발한다.

팬퍼시픽의 필리핀 보라카이·세부 정기 노선도 각각 목·일요일, 수·토요일 주 2회

■ 무안국제공항 정기선 취항

노선명	항공사	편수	취항일
중국 상하이	동방항공	2 (수, 토)	3.28
일본 기타큐슈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3 (화, 금, 일)	3.27
필리핀 보라카이	팬퍼시픽	2 (목, 일)	3.29
필리핀 세부	팬퍼시픽	2 (수, 토)	3.28

운항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기선이 모두 끊겼던 무안공항에 오는 3월 말이면 4개 노선, 항공기 9편의 정기노선이 운항되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사드 문제 등으로 이용객이 29만8000명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2007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흑산공항 개항, 호남고속철도 경유 등이 추진되면 무안공항 이용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빛 세배’... 설 연휴 환호·감동

윤성빈 스킨슬레TON서 썰매 첫 금

최민정 女 쇼트트랙 1500m 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빛 세배를 열었다. 설날 연휴 기간 스킨슬레TON의 윤성빈(24·강원도청)과 여자 쇼트트랙 최민정(20·성남시청)이 금메달 소식을 전해왔다. 윤성빈은 지난 15~16일 평창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남자 스킨슬레TON 1~4차 시기 합계 3분20초55를 기록,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니키타 트레구보프(3분22초18)를 누르고 대한민국에 두 번째 금메달을 선물했다.

그는 세 차례나 트랙 레코드를 갈아치우는 압도적인 질주로 역대 동계 올림픽

스켈레TON 사상 가장 큰 1.63초의 격차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성빈의 금메달은 한국 올림픽 썰매(스켈레TON·봅슬레이·루지) 종목 최초의 금메달로 남게 됐다.

김지수(24·성결대)도 6위의 좋은 기록으로 안방에서의 올림픽을 빛냈다.

최민정은 ‘실력’의 아쉬움을 딛고 1500m에서 금빛 레이스를 선보였다. 최민정은 지난 17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

24초948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앞선 여자 500m 결승에서 2위로 끝낸 하도도 실력 판정으로 메달을 눈앞에서 날렸던 최민정은 눈부신 막판 스피드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최민정의 다관왕 도전에도 시동이 걸렸다. 최민정은 1500m의 기세를 이어 여자 1000m와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을 겨냥한다.

같은 날 열린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는 서이라(26·화성시청)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석(19·성남시청)은 1500m에서 ‘깜짝 동메달’을 선취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평창 동계올림픽 ▶ 2·18·19·20면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18 진실

도청 앞 ‘자위권 발동’ 기록 지웠다 ▶ 7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